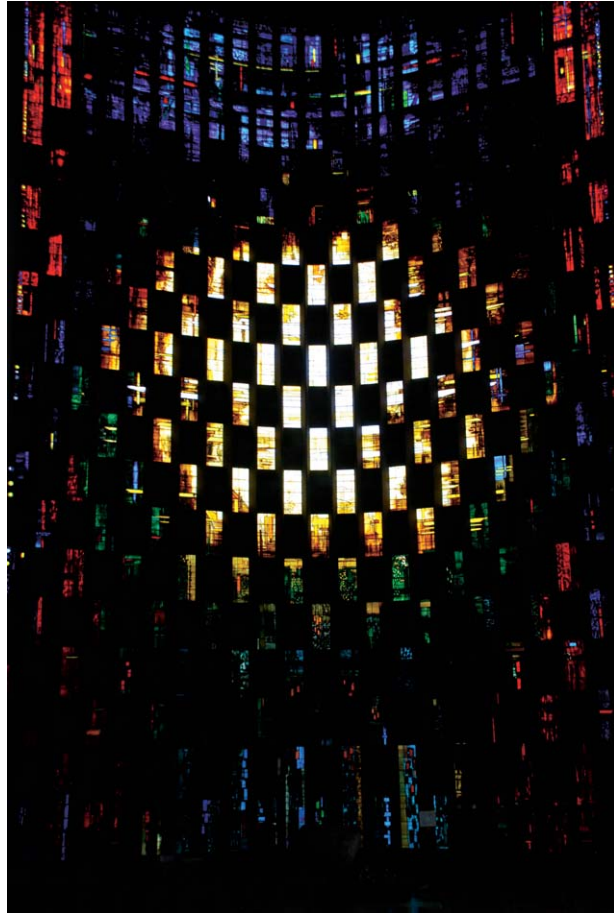


발행인: 정진석 | 편집: 서울대학교 문화홍보국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5 천주교 서울대학교 교구청별관 3층 문화홍보국 | 홈페이지: www.catholic.or.kr



존 파이프(John Piper, 1903-1992)
〈생명의 빛〉, 1959-1962년, 유리화,
코벤트리 대성당, 코벤트리, 영국

성화 해설

세레다가 놓인 벽면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된 이 유리화는 195개의 판넬로 이루어져 있다. 추상으로 제작된 이 작품의 주제는 하느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다. 중앙의 황금색 원형 유리화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예수님과 긴밀하게 일치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입당송 시편 98(97),1-2 참조

제1독서 사도 9,26-31

화답송 시편 22(21),26ㄴ-27,28과 30ㄴㄴ,30ㄷ-32(◎ 26ㄴ)

◎ 주님, 큰 모임에서 드리는 저의 찬양도 당신에게서 오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
- 온 세상 끝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민족 모든 가문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 모든 권세가들 그분께만 경배하고, 흠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그분께 무릎 꿇으리라. ◎
- 내 영혼 주님 위해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다가올 세대에게 주님 이야기 전해져, 태어날 백성에게 그

의로움 알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음이다. ◎

제2독서 1요한 3,18-24

복음환호송 요한 15,4ㄴ,5ㄴ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음 요한 15,1-8

영성체송 요한 15,1,5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나는 참포도나무이다



구요비 읍신부 | 프라도회 한국책임

우리 나라에 ‘포도나무’가 들어오고 포도 재배가 자리 잡는 과정에 선교사 신부님들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지금의 안성(安城) 포도가 불란서 신부에 의해 번식되었고, 1910년대에 지금의 대학로가 자리 잡은 동숭동 일대는 넓은 포도원 농장이었다. 선교사들은 포도 농사를 통해 가난한 교회의 살림을 꾸려왔던 것이다. 이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백성에 대한 목자적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

오늘 복음에서 농부인 하느님 아버지와 참포도나무인 예수님 사이에(1절), 그리고 포도나무인 주님과 그 가지인 우리 인간 사이에(5절) 이 사랑이 깊게 배어 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구세사 안에서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인간은 광야에서 마구 자라온 야생 포도나무와 같다(이사 5,1-7). 하느님은 이 포도나무를 지극 정성으로 키우고 돌보아 주시지만 그 결과는 늘 실망과 후회뿐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걸어온 기대와 희망을 성취하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 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1절).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운명을 담고 있다. 포도 농사꾼은 겨울에 죽은 가지들을 잘라내고, 이때에 좋은 나뭇가지도 전지(剪枝)하는데, 이는 수액을 모으고 많은 포도송이를 소출해 내기 위해서이다. 이런 가지치기가 없을 때 포도나무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자랄 뿐이다. 농부들은 가지치기를 할 때 포도나무가 아파서 운다고들 말한다. 포도의 수액은 나무의 상처가 아물기 전까지가 가장 많이 흘러내린다. 어디 그뿐이랴?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맛깔진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부서지고 으깨어져야 한다. 예수님 자신이 이런 운명을 사셨다. 십자가 나무 위에서 피 흘리는 참혹한 고통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한 포도주가 되셨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

매로 빛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마르 14,25)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 자신인 참포도나무에서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서 마실 새 포도주가 빚어진다.

하느님과 인간이 이루는 일치의 기쁨과 행복을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설명한다. “향기로운 포도주를 마시는 하느님과 친교가 영혼 전체 안에 실제로 펼쳐지는 것이며, 영혼이 하느님 안에 변화되어 사랑하는 님(하느님)이 나를 당신의 사랑 안에 두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마시게 하신다”(영적찬가 26).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하고 여덟 번이나 반복해서 호소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4절)’는 말씀은 바로 기도 생활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 기도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신앙 행위가 되어야겠다. 이는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르시도록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7절).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의 정신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음미하고, 기억하고, 갈망하고, 관상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요한 15, 4).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이금주 벨라뎃다 | 방송작가

썸1 장소: 아파트 후문에서 공원으로 가는 길 / 때: 오 전아홉시경 / 등장인물: 일흔 후반의 부부.

“하나 두울! 하나 두우우울!” 한쪽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를 부축하고 걸어가는 할아버지의 구렁이다. 잔뜩 흥에 겨운 추임새처럼 들린다. 할아버지의 구렁에 맞추어 할머니는 아기 걸음마 하듯 간신히 발걸음을 떼고 있다. 성한 오른발은 빠른 ‘하나’이다. 그다음, 불편한 왼발을 들어서 앞으로 내밀고 땅에 딛을 때까지의 ‘두우울’은 엄청 길다.

썸2 / 다른 날. “하나 두우울! 하나 두우우우우울!” 이제 보니 할머니의 걸음에 맞추어 구렁을 하고 있다. 할머니가 왼발을 들 때 ‘두우~’를 시작해서 발을 앞으로 내밀 때까지 길게 계속 ‘우~’를 하고 있다가 발이 땅에 닿으면 ‘울!’한다. 감탄에 겨워하며 활짝 웃는다. 마치 아기가 첫발을 내디뎠을 때의 탄성처럼,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듯이. 마치 못해 나온 듯 할머니는 내내 무표정하다. 몇 걸음 걷다가 멈춘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인 후 기다리고 있다. 환한 미소로. 다시 시작하라는 격려를 담은, 이보다 더 사랑할 순 없는 눈빛이다. 또 하나, 할머니 혼자 걷고 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여차하면 붙잡을 수 있도록 오른손을 할머니의 팔뚝에 가까이 대

고만 있다. 눈은 발에 고정시킨 채 온 신경이 향해 있다. 왼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다. 그 안에는 삶은 달걀 네 개와 작은 생수병이 담겨있다.

썸3 / 다른 날. 할머니 기분이 좋은 날인 것 같다. “그랬어? 허허 참 나야! 당신은 정말 머리가 좋은 거 같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허허 나 같으면 절대로 그런 생각 못했을 거야. 당신 정말 대단해!” 뭔가 할머니의 말에 대한 할아버지의 반응이다. 비아냥이 아닌 진심 어린 감탄이다. 공원까지는 사오십 분 이상 걸려야 도착할 것 같다.

썸4 / 다른 날 정오경. 아파트 내 벤치. 긴 산책에서 돌아온 후인 듯싶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있고 할아버지는 그 앞에 구부리고 앉아있다. “괜찮아? 힘들었지?” 마치 구애를 하는 듯한 자세로 올려다보며 할머니의 불편한 발을 주무르고 있다. 할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활짝 웃으며.

드라마가 아닙니다. 오늘도 저는 저만큼 지나쳐 고개 들려 보느라 넘어질 뻔했습니다.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니고 따스한 손길인 것 같습니다. 고단하고 지루한 항해 끝에 병약한 몸만 남게 되어도 끝까지 서로 손을 잡아 주는 부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19

출산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의료적 개입은 가능하나 혼인 행위를 대신할 수 없다

“의학은 반드시 성이 갖는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의사는 모든 인간과 그 인간 출산에 봉사해야 한다. 그는 인간 생명을 함부로 처리하거나 그들의 운명까지 결정할 하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의료적 개입은 그것이 부부행위를 촉진시켜 주거나 정상적으로 행해지는 부부행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줄 때 비로소 인간의 품위를 존중하는 것이 된다” <생명의 선물 제2부 7항>.

오늘날 의료적 기술이 인간 출산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입할 때 자연적 부부행위를 원활하게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는 항상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이 출산만을 위한 목적으로 부부행위를 대체하는 것은 사랑의 결실과 선물로 새 생명을 전달하려는 창조주의 뜻에 어긋납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 생명이 전수된다면 새 생명은 마치 실험실의 산물이나 소유 가능한 물건처럼 취급됨으로써 인간의 존엄한 품위와 권리가 훼손되고, 아이에게도 “부모의 특별한 부부 사랑 행위의 결과로 인한 열매가 되는 권리와, 또한 수태 시부터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경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선 가톨릭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먼저 모범적으로 인간 생명 전달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요청합니다.



청국장을 아시나요?

(www.catholicshop.or.kr)

요즘 청소년 사목을 하시는 분들이 청국장을 많이 찾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청국장이 청소년 사목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궁금하시지요? 우리 고유의 자랑스러운 음식, 청국장이 암을 예방하고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청소년국의 청국장 역시 청소년 사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목은 주일날 학생들을 교리실에 모아 놓고 성경 말씀이나 교리만 배우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청소년 사목은 단순히 교리실에서 성경과 교리 지식을 전하기보다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청소년 사목자들이 청소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목은 머리로 전달되는 것이라기보다도 가슴으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떠드시면서 그들과 가슴을 맞추셨습니다. 청소년 사목도 이렇게 학생들과 가슴을 맞추는 삶의 교육입니다.

학생들과 가슴을 맞추기 위해서는 참 여러가지가 필요합니다. 성경이나 교리만 가르친다면 성경책하고 교리서만 있으면 되겠지만, 학생들과 가슴을 맞추고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더 많이 요구됩니다. 청소년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청소년 법인의 설립과 더불어 학생들의 신앙교육이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국에 소속된 유아사목부서부터 청년사목부서까지 7개 부서와 세 곳 청소년 수련관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여겨져, 청국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청소년국 청국장은 바로 청소년 사목 지원을 위한 장터입니다. 하지만 물건만 파는 장터는 아닙니다. 옛날 시골 장터가 그랬듯이, 5일 만에 한번 읍내에 나와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이웃 마을 친구 소식도 전해

들 수 있었던 것처럼, 청소년국 장터, 청국장은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청소년 사목을 위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만나는 그야말로 청소년 사목을 위한 온라인 장터입니다.

청소년 사목은 어느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 사목은 가정에서, 본당에서,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채널들 안에서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 사목이 점점 어려워진다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이 세상의 다양한 재미에 정신이 쏠려서 신앙교육을 소홀히 해 가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바라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국장은 청소년 사목을 위해서 새롭게 접근해 보는 또 하나의 청소년들을 향한 “손 내밈”입니다. 물론 이 장터 하나로 청소년 사목이 완성되리라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걱정하고 또 청소년 사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면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청소년 사목이 될 수 있겠지요.

이제 막 열린 청소년 사목의 장터는 바로 청소년을 가정에서 기르시고 본당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모든 이를 위한 공간입니다. 언제라도 시간 나는 대로 청국장으로 오셔서 청소년 사목에 필요한 여러 아이템과 함께 좋은 의견 나눔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막 열린 이 장터가 아직은 좌관에 물건 몇 개만 올려놓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관심이 모아진다면 청소년을 위한 사람들의 장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국에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장터가 청소년 사목을 위한 나눔 장터가 되어서, 그리고 청소년 사목이 이를 계기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가슴에 담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식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성모성월 기도(가톨릭기도서 30 쪽)를 바치기 바랍니다.

5월은 헌미헌금 봉헌의 달

5월은 헌미헌금 봉헌의 달입니다. 매 끼니마다 예수님과 이웃을 생각하며 한 줌의 쌀을 떼어 본당 2차 헌금으로 봉헌하여 주십시오. 헌미헌금 봉헌 권고일은 5월 17일(일)이며, 모아진 봉헌금은 인종, 종교, 국적을 초월하여 고통받는 전 세계 이웃들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 문의: 727-2267(www.obos.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재개 반대 성명서 발표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29일(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승인함으로써 재개될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반대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성명서 전문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www.cbck.or.kr 참조).

제9회 일치포럼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에서는 ‘지구화 시대의 교회일치 운동’이라는 주제로 제9회 일치포럼을 개최합니다(발표: 몰트만 교수). / 문의: 460-7621
· 때, 곳: 5월14일(목) 오후 7시~9시30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축사: 김희중 주교, 권오성 목사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5월14일 이계선 레오 신부(61세) 1979년, 용산

교구별 생태 복음화 교육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는 우리나라 생태계 현실과 지구의 미래를 하느님의 창조와 예수그리스도의 구원에 비추어 실천방향을 모색하는 ‘교구별 생태 복음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 문의: 460-7622
· 주제: 생태적 치유와 4대강 개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
· 때, 곳: 5월25일(월) 오후 2시~6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 포럼 ‘선교와 미디어’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는 언론에 비친 천주교의 이미지를 고찰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교의 방향을 토의하는 문화의 복음화 포럼 ‘선교와 미디어’를 개최합니다.
· 때: 5월15일·6월19일(금) 오후 2시 / 문의: 460-7686
· 곳: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 소주제: 김수환 추기경과 미디어(5월), 언론에 비친 천주교 이미지(6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가락2동성당 여사무원 모집

- 대상: PC 및 회계업무 가능한 분 / 문의: 2043-0085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 5월15일(금)까지 방문 및 우편 접수
- 주소: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54-10 가락2동성당

교구청 알림

사목국 가정사목부

낙태치유프로그램 및 월레미사 ‘희망으로 가는 길’
·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 때, 곳: 5월12일(화) 13시30분-16시30분,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회비 없음) / 727-2071

제8차 부부여정 운영자 양성교육
· 대상: 일반 부부, 본당에서 부부여정을 운영할 부부, 성직자, 수도자 / 회비: 부부 10만원
· 때, 곳: 5월24일-6월21일 매주(일) 14시-18시, 구의동성당 / 727-2070(www.ihome.or.kr)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가족의 날 야외미사
· 때, 곳: 5월11일(월) 9시30분(명동성당 마당에서 출발), 성거산성지(5월3일 공지내용이 변경됨)
· 대상: 후원회원 / 문의: 921-5094 후원사업부

2009년 대부학교
· 대상: 대부로 활동할 수 있는 남성교우
· 때, 곳: 5월19일(화)·21일(목) 19시-21시, 23일(토) 10시-18시, 교정사목센터 ‘빛의 사람들’
· 문의: 921-5093 교육·홍보부(5월18일까지 접수)

가톨릭 유아교육 담당교사들을 위한 생태월례강좌3

· 대상: 가톨릭 유치원·어린이집 유아교육 담당교사 및 관심자 50여명 / 회비: 1만원
· 내용: 생명의 먹을거리-아이간식 만들기(안경희 선생-자연을 품은 우리집 밥상 저자)
· 때, 곳: 5월16일(토) 10시-12시, 명동성당 교육관 305호 / 727-2283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	5. 17. 14시-17시	사당동 본원	010-2704-6186
그리스도왕 선교 수녀회	5. 17. 14시	수녀회성북동한국본부	011-9386-3241
돈보스코 여자재속회(VDB)	5. 17. 10시-17시	살레시오 3층(신길동)	011-797-3115
마리아 수도회(남자)	5. 17. 14시	서울본원및각지역본원	010-3773-4044
마리아의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5. 17. 14시	가리봉 수녀원	016-570-0939
삼성산 성령 수녀회	5. 17. 14시-17시	수녀원 본원	010-2738-0039
세례자 성 요한 수녀회	5. 17. 15시	수녀회 수원 본원	010-2432-4230
성 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회	5. 17. 14시-17시	돈암동 본원	010-7101-9302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베네딕도 왜관 수도원	5. 16. 16시-17. 14시	본원(경북 왜관)	019-9353-2323
성 빈첸시오 아바오로 사랑의딸회	5. 17. 14시	군포 수녀원	010-6625-0927
순교자의 모후 전교 수녀회	5. 17. 14시	갑곶성지 수녀원	010-2954-1685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5. 17. 14시	스승예수제자수녀회본원	016-9876-0418
예수수도회	5. 17. 14시	홍지동 수녀원	011-9910-1198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자매회	5. 17. 13시-14시	음성 꽃동네	011-806-6879
위로의 성모 수녀회	5. 17. 14시	성북동 본원	010-2210-3660
한국 성모의 자애 수녀회	5. 17. 14시	계산 서원	010-9407-6219

알림

모임

위로의 젊은이 기도모임

· 때, 곳: 5월12일(화) 20시, 위로의 성모 수녀회 성북동 본원(주최) / 765-3660, 010-4805-4224

목주기도 200단(성모송 2000번 기도모임)

· 세상 떠난 영혼을 위하여(중식제공) / 2209-6185

마리아 운동 다락방 모임

· 때: 5월14일(목) 오후 2시-4시
· 곳: 전진상교육관 / 문의: 019-9373-2004

예수 고난회 명상의 집 2박3일 소그룹 침묵피정

· 때: 5월27일(수)-29일(금), 6월15일(월)-17일(수)
· 곳: 예수 고난회 명상의 집 / 990-1004, 2004

성지 도보순례 피정

· 대상: 젊은 미혼 여성 / 회비: 3만5천원
· 때, 곳: 5월30일(토) 9시-31일(일) 18시, 솔피·해미 / 문의: 011-9910-1198 예수수도회

성심교육관 성모성월 2박3일 무료피정

· 주제: "무엇이든 지그사기사는 대로 하여라." (요한 25)
· 때: 5월15일(금) 오후 6시30분-17일(일) 오후 3시
· 곳: 성심교육관(성심기도원) / 031)262-7600

11지구 성령쇄신봉사회 희망의 치유 대피정

· 내용: 말씀, 미사, 안수(회비없음) / 579-9870
· 강사: 차동엽·오수영 신부(오순절 평화의 마을)
· 때, 곳: 5월11일(월) 9시30분-16시30분, 개포동성당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청소년·청년 기도모임

· 때, 곳: 5월16일(토) 오후 6시45분, 작은 형제회 수도원 성당(정동) / 주최: 청소년의 햇살
· 문의: 744-0840(www.taizelove.or.kr)

광주대교구 재정성소후원회 피정

· 때, 곳: 5월18일(월)-19일(화), 광주대교구 지리산 피아골 피정집(방배동 까리따스 수녀원 1시 출발) / 062)380-2280, 1 광주대교구 성소전담

10지구 성령쇄신봉사회 말씀 치유 대피정(5월)

· 강사: 차동엽 신부 / 문의: 010-4749-7234
· 때, 곳: 5월11일(월) 14시-17시30분, 오금동성당(전철 5호선 마천행 바이역 하차 1번 출구)

묵상 관상 기도 피정

· 미사: 신원식 신부 / 016-332-8789) 가르멜 동정녀회
· 때, 곳: 5월17일(일) 14시-17시, 가톨릭 출판사 신관 8층(전철 2, 5호선 충정로역 5번 출구 직진 2분)

성서학교 마태오복음 안내

· 때, 곳: 매주 강의를 미사·안수있음(강사: 김명희, 이해봉)
· 때, 곳: 매주(월) 13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11-778-0220, 011-399-3993 작은 예수회

15-B(양천)지구 성모성월피정

·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소서(강사: 한상우 신부)
· 때, 곳: 5월12일(화) 13시-17시, 양천성당 지하대강당
· 문의: 011-787-4036 15-B지구 성령쇄신봉사회

치유 일일 피정(문의: 018-330-3283)

· 내용: 찬양과웃음치유/찬양: 예수사랑음악원(주최)
· 강사: 메히틸다 수녀(성가소비녀회), 에프렘 수사(성베네딕도회)/미사: 박성구·김재영·한철호 신부
· 때, 곳: 매주(수) 13시-17시30분, 작은 예수회 관(전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 지하)

가족관계의 상처와 치유피정

· 강사: 한철호 신부(한강 성심병원)
· 회비: 5만원(선착순 40명) / 5월19일까지 접수
· 때, 곳: 5월22일-6월19일 매주(금) 13시30분-16시30분(5주간), 명동성당 교육관 205호
· 문의: 011-9261-4982 가정사목부 가정성화사도직

서울대교구 철야기도회

· 고해성사, 치유성당, 성시간, 미사, 강의, 기도회
· 때: 매주(금) 22시, 동성고등학교 강당(전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 문의: 867-7900
· 5월15일(금): 정귀철 신부, 5월29일(금): 서정혁 신부

1주 치유성당, 양정영성체	2주 중개기도, 치유기도, 안수예절
3주 연속 영혼을 위한 기도회	4주 성체가동
5주 가정미사	주최: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몽골(선교지) 자연피정

· 때: 1차 7월23일(목)-28일(화), 2차 8월13일(목)-18일(화) / 042)256-4111 몽골선교후원회

성직자 수도자를 위한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피정

· 거룩한 독서피정: 5월18일(월)-22일(금) 4박5일
· 미술LD: 5월26일(화)-6월2일(화) 7박8일
· 문의: 054)973-4835, 011-542-4835 연화리 피정의 집

명동성당 월요 치유 대피정

· 내용: 미사, 강의, 치유기도, 안수(회비없음)
· 강사: 성직자, 수도자, 일반 교우
· 때, 곳: 매주(월) 13시30분-17시30분, 명동성당 내 별관 / 017-225-6072 명동성당 성령기도회

교육

평화심리상담소 충분히 좋은 부모되기

· 내용: 부모의 고령된 생각과 기대가 자녀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 문의: 775-4831, 2
· 때: 5월21일(목) 오전 10시부터(8주)

성신아동청소년 교육상담소

· 내용: 학교생활 적응, 시험불안 및 진로상담
· 대상: 유아·초·중·고·대학생·학부모(전철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 567-7685(www.sunghincc.co.kr)

'몸의 신학'

· 때, 곳: 5월23일(토) 14시-18시,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회비: 1만원) / club.cyworld.com/ICPE
· 문의: 326-6209 세계복음화 ICPE 선교회

표현예술상담사 3급 자격과정

· 다양한 예술매체를 치유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예술테라피 교육과정으로, 여성리더 양성 과정임 / 문의: 777-4763 탈리다콤플렉스
· 때: 5월11일-6월29일 매주(월) 14시-18시(8주과정)

가톨릭 목조각 '기초에서 작품까지'

· 내용: 성화, 성구, 성모 마리아, 십자고상 등
· 때, 곳: 매주(월) 13시30분-16시30분(오후반)·19시-21시30분(야간반), 청담동성당(주최) 지하 목공예교실
· 문의: 3446-1544(http://cafe.naver.com/cmc04)

서울대교구 가정사목부 약혼자 주말

· 대상: 혼인을 준비중인 젊은이 및 혼인 1년 전후의 신혼부부 / 주최: 가정사목부 약혼자주말 협의회
· 때, 곳: 57차 6월12일(금)-14일(일) 58차 7월10일(금)-12일(일), 살레시오 / 문의: 318-2079

예수살이 공동체 11기 제자교육

· 소비사회에서 예수 제자 되기, 기도와 성사생활 뜯짜기, 그리스도론, 좌선명상 등(회비: 12만원)
· 대상: 35세 이상 교우 / www.jsari.com 참조
· 때, 곳: 남성 6월11일(목)-14일(일), 마리스타 교육관(합정) / 3144-2144, 2442(팩스: 334-2144)

신자 재복음화를 위한 영성과정 다시보기 11주간

· 내용: 신자 재교육 영성강의와 나눔 / 회비: 3만원
· 때, 곳: 매주(수) 19시30분(5월13일 시작), 성북2동 글라렛미션센터(전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 버스 1111, 2112, 마을버스 03 성북초교앞 하차)
· 문의: 745-2064, 010-5290-1358 글라렛선교수도회

한국 가톨릭 여성 연구원 강좌 / 메달전

강좌	5월16일(토) 14시30분 / 강원숙 교수	318-2338
	중년, 삶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	2164-4804
메달전	5월19일(화)-31일(일) 성모성월종교메달전(전시판매)	
	5월20일(수) 11시-15시 성모의날미사및강의	

서울 가리따스 알코올 상담센터 프로그램

· 술 때문에 고통받는 의존자 및 가족을 도움 (http://acc.or.kr)
· 무료 상담 및 문의: 521-2364, 2577(내방 10시-17시)

의존자 프로그램 술을 끊고 싶은 분을 위한 주간 및 야간 프로그램운영

가족 프로그램	가족치료 모임 운영: 매주(목) 오후2시
	자녀 모임 운영: 매주(화) 오후7시30분

예비신자 우편 및 사이버 통신교리(문의: 2274-1843, 4)

· 대상: 18세 이상, 본당의 예비신자 교리반에 함께 할 수 없는 분(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주소: 중앙우체국 사서함 5234호(우: 100-652)

우편 통신교리	본당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및 보통우표 20장 동봉 후 등기발송
사이버 통신교리	홈페이지(http://www.cdcc.co.kr) 로그인 후 수강 신청 및 신청요금 입금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필리핀 여름방학 영어캠프

· 때, 곳: 7월 중순(4주간), 마닐라 산아거스틴 학교
· 대상: 중·고생 남녀 / 회비: 280만원(선착순 마감)
· 문의: 010-9204-1262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모집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영재아카데미 학생모집

· 대상: 피아노, 성악을 전공할 초·중·고등학생
· 오디션 문의: 393-2213~5

청소년구 어린이합창단 '마니파카' 신입단원 모집

· 대상: 초등학교 2-6학년(가톨릭 교우)
· 연습: 매주(화·토) 오후 6시-8시, 구립 서초유스센터 / 016-249-7393(www.magnificat.or.kr)

외국인근로자센터 봉사자 모집

· 내용: 한국어교실 교사(일반 봉사자)
· 때: 매주(일) 한국어교실: 13시-15시, 일반봉사: 14시-16시 / 031)987-6241 예수회 이웃살이(김포)

2009학년 후기 가톨릭대학교 특수대학원 신입생 모집

· 내용: 행정대학원, 문화영성대학원, 경영대학원
· 접수: 5월11일(월)-15일(금)까지(우편접수 가능)
· 행정대학원: 반포소재 / 문화영성대학원, 경영대학원: 부천소재 / 2164-4856-8(www.cuk.ac.kr)

호산나 선교단 찬양팀 모집

· 모집부문: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간반, 엔지니어
· 대상: 선교사의 정신으로 음악적 재능을 주님께 봉헌하려는 청년들 / 010-9281-0538 최준철

2009년도 후기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석사과정) 모집

· 대상: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전공불문)
· 모집부문: 석사과정(교회음악과) / 393-2213-5
· 모집기간: 5월11일(월)-22일(금)까지
· 홈페이지: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미사

한국교회사연구소 후원회 미사

· 때, 곳: 5월15일(금) 11시30분, 명동성당 지하 소성당 / 756-1691(내선 1번) 한국교회사연구소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성체조배

· 기도교육, 미사, 성체조배 / 문의: 773-3030
· 때, 곳: 5월14일(목) 14시, 명동 별관

수험생을 위한 미사와 부모 1일 피정

· 대상: 고3, 수험생 부모와 희망자 / 3462-5959, 60
· 때, 곳: 5월13일(수) 10시, 우면동성당(주최)
· 10월까지 매월 둘째(수) 10시 미사와 피정 있음

파티마 성모발현 92주년 기념 및 평화통일기원미사

· 미사: 조규만 주교 및 전국 지도신부 공동 집전
· 때, 곳: 5월13일(수) 10시-16시, 임진각 야외 공연장 / 756-3473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살레시오 월례 영성 강좌와 미사, 안수

· 주제: 마리아 영성(지도: 김보록 신부)
· 때, 곳: 5월11일(월) 10시-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848-9932, 011-711-9928

마리아수도회 성소후원회 월례 미사

· 때, 곳: 5월25일(월) 오전 11시, 마리아의 딸 수녀회 본원(서울시 양천구 목2동 532-8)
· 문의: 016-372-4462 서울 성소후원회장 정옥희

성소문의: 010-3773-4044 박찬복 신부

안내

성령 선교 수녀회 피정 안내

· 각종 세미나 및 모임, 소그룹 피정, 여성들을 위한 개인 피정가능 / 문의: 741-4895 명륜동 본원

가톨릭 여성의 전화전화상담, 면접상담 가능)

· 가족갈등, 부부(폭력 등), 개인문제 등
· 상담시간: 매주(월-금) 오전 10시-오후 6시
· 면접 예약 및 사무: 3675-1338 / 상담: 745-1366

※교회단체 '알림' 게재 안내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평화방송 · 평화신문은 매주 화요일에 은인과 후원자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바로로 사도 탄생 2000주년 '바로로의 해' 제3차 터키 - 그리스 크루즈 성지순례



바로로의 해 특별히년 폐막(6월 29일)을 앞두고 평화방송 · 평화신문은 바로로 사도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제3차 터키-그리스 크루즈 성지순례를 마련합니다.

450여 명이 함께 한 1차(2008년 11월)와 2차(2009년 3월)에 이어 바로로의 해에 떠나는 제3차 크루즈 성지순례는 열정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 사도들의 신앙과 삶을 따르는 배움의 길이 될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의 행로를 따라 뱃길로 떠나는 새롭고 뜻깊은 크루즈 성지순례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문의: 2266-1591~2

- 순례 일정: 2009년 6월17일~27일(10박 11일)
- 순례 여정: 그리스-터키(아테네-코린토-이스탄불-미코노스-파트모스-에페소-로도스-크레타-산토리니) / 순례 경비: 378~438만원(객실에 따라 4가지)

평화방송 · 평화신문 특별한 성지순례

- 1. 정통 유럽 3개국 순례**
 - 프랑스(루르드)-스위스-이탈리아
 - 5월27일 출발(10박11일)
- 2. 성경의 세계 순례**
 - 이집트-요르단(페트라)-이스라엘
 - 5월27일 출발(9박10일)
- 3. 성모발현성지 순례**
 - 벨기에(반뇌)-프랑스(루르드)-스페인-포르투갈(파티마) / 5월27일 출발(10박11일)
- 4. 프랑스 와이너리와 중세 수도원 순례**
 - 파리-보르도-베를레-퐁네트-부르고뉴-콜마-스트라스부르크-랭스-에프르네
 - 6월29일 출발(9박10일)

※ 문의: 2266-1591, 2(www.pbc.co.kr)
평화방송 여행사

평화방송 · 평화신문 창립 21주년 기념 제 2회 '생명포럼'

주최: 평화방송 · 평화신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때, 곳: 5월21일(목) 오후 2시~5시30분, 명동성당 코스트홀

- 사회: 김은미 교수(이화여대)
- 포럼제안: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한국과 국제사회, 공격개발원조 기본법의 의미와 필요성)
- 주제 I: '지구촌 빈곤과 생명의 위기' -지구촌 빈곤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생명의 위기에 대해 / 발표: 박정우 신부(생명위원회)
- 주제 II: '지구촌 빈곤퇴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법과 제도,

- 인식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 발표: 장현식 이사(한국 국제협력단)
- 패널: 이태주 교수(한성대), 김용태 신부(한마음한몸운동본부장), 홍숙희 교수(서울성모병원), 주용식 대외경제국장(기획재정부), 박강호 개발협력국장(외교통상부), 김충환 의원(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윤현봉 사무총장(한국 해외원조단체 협의회)



노영심 '오월의 피아노 - 기류'

· 입장권: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노영심이 15년 동안 해마다 5월, 자신만의 음악적 텍스트를 피아노로 표현해온 '오월의 피아노'가 5월20일(수)~21일(목) 오후 8시, LG아트센터에서 있다. 이번엔 그녀가 선택한 주제는 '기류'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운전을 하나로 몰고 가는 기운을 음악을 통해 전한다. / 예약 및 문의: 522-9933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1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후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

뮤지컬 사도바로로 '이마고데이(Imago Dei) - 하느님의 모상'

· 입장권: 성인 4만 원, 청소년 3만 원 | 예매 및 문의: 2253-9191
· 공연시간: 월·수·토·일 15시 / 목·금 20시(5월5일·12일·13일·19일 휴관)



뮤지컬 사도바로로 '이마고데이(Imago Dei) - 하느님의 모상'이 관객 2만명 돌파를 기념해 앙코르 공연한다. 4월 30일(목)~5월25일(월), 살레시오회 관구관 7층(전철 7호선 보라매역 3번 출구 도보 10분)에서 있다. '바로로 해'를 맞이하여 바로로 생애의 이해와 더불어 하느님의 모상을 발견하기 위해 완성한 작품이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후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